

高麗本『密教大藏』卷61에 관한 書誌的 研究

A Bibliographic Study on Vol.61 of The *Milgyodaejang*

박 광 헌 (Park, Gwang-hun)*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密教大藏』卷61의 내용적 분석 |
| 2. 『密教大藏』의 간행과 유통 | 4.1 수록경전의 函次 기입 분석 |
| 3. 『密教大藏』卷61의 형태적 분석 | 4.2 본문의 구성 |
| 3.1 판본의 형식 | 4.3 재조대장경의 해당경전과의 비교 |
| 3.2 장정의 분석 | 5. 간행시기에 대한 고찰 |
| 3.3 종이의 분석 | 6. 결 언 |
|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密教大藏』의 판본을 발굴하여 소개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판본을 형태적·내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간행시기를 유추하였다.

『密教大藏』은 총 90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충숙왕대에 이르러는 40권의 내용을 추가하여 총 130권을 金字로 寫成할 만큼 당시로는 대장경만큼이나 중요한 경전이였다.

『密教大藏』은 고려 13세기 중반에 간행된 불교경전으로 여러 경전에 나오는 진언을 모아 하나로 종합한 밀교 진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성은 재조대장경의 함차에 의거하고 있으나, 내용은 재조대장경과 비교할 때 재구성되어 있어, 내용상의 母本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권말에 나오는 각수명을 통하여 간행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1259~1265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要語: 高麗, 密教, 『密教大藏』, 金書密教大藏, 金俊政權, 眞言, 陀羅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atssara@daum.net)

접수일: 2014년 5월 28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7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e introduction of the *Milgyodaejang* Vol. 61 that is in the category of The Esoteric Buddhism Scriptur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Milgyodaejang* Vol. 61 in the aspect of physical feature and content. And it was not missed that when it has been published as well.

The *Milgyodaejang* was published in whole series of 90 volumes at first. After then, it was made of golden manuscript 130 volumes in whole. That means, it was very important book compared to Tripitaka Koreana.

The content of *Milgyodaejang* is mainly about holy words of Sanscrit in Buddhism scriptures. It was seen that the material had been published in Goryeo Dynasty of 13C. The structure of this book was applied with the Tripitaka Koreana, but the content was reconstituted. So we supposed that another edition could be existed that was being the original book of the *Milgyodaejang*. We could derive the publication time of the material from the name of engraver, which was regarded in the time of 1259~1265.

Key words: Goryeo Dynasty, *Milgyodaejang*, Golden Manuscript, Holy words, Mantra

1. 서 언

이 글은 새로 발견된 木版本 『密教大藏』 卷61에 대하여 공개하고 서지학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여 밀교대장의 형식과 간행시기에 대해 다루었다. 호림박물관 소장 『密教大藏』 卷61은 호림박물관에서 근무하며 고서정리 중 수장고에서 발견하였다. 이것은 70년대 초반 호림 윤장섭 선생이 구입하여 성보문화재단으로 기증한 유물 중의 하나다.

『密教大藏』은 木版本과 金字寫經으로 만들어졌다는 기록만 전해지고 있던 것으로 그 대상 실물은 어떠한 종류도 발견된 적이 없다가 2008년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에서 나온 복장유물에 『밀교대장』 권9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학계에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호림박물관 소장 『密教大藏』 卷61은 본인이 호림박물관 전적 전수조사 과정 중에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 지금까지 알려진 현존본은 2권 밖에 없다. 또한 지금까지 『밀교대장』에 대한 연구는 변동명이 쓴 “忠肅王의 密教大藏 金字寫經”¹⁾이라는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연구가 미진하였다. 그 이유 또한 그동안 실물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동명은 그의 연구에서 실물을 접하지 못한 채 기록을 통해 『密教大藏』은 밀교부 경전의 전체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다라니를 모은 경전일 것이라는 설을 세웠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가설로만 존재했던 『密教大藏』의 木版本 실물의 분석을 형태적으로 내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밀교대장이 어떠한 경전이었는지를 밝히고 관련 자료와의 내용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여러 단서를 종합하여 밀교대장경의 간행시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密教大藏』의 간행과 유통

밀교대장의 간행에 관한 기록은 李齊賢이 쓴 『益齋亂稿』의 卷第五에 수록되어

1) 邊東明, “忠肅王의 密教大藏 金字寫經,” 『역사학보』 184(2004), 41-77.

있는 “金書密教大藏序”²⁾의 기록이 유일하다. 이 기록을 통해 忠肅王 15年(1328)에 금니 사경으로 130권의 밀교대장을 사성하기 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밀교대장 90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328년 이전에 밀교대장의 목판은 간행되었고, 이후 40여 권을 더 찾아내어 합하여 130권의 『金書密教大藏』을 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密教大藏』은 조선초에도 유통되었는데 그 기록은 고려말에서 조선초의 文臣 權近(1352~1409) 文集인 『陽村先生文集』 권13에서 살펴볼 수 있다. 太宗 1年(1401)에 太祖가 晩年에 德安殿을 새로 짓는데 權近의 ‘德安殿記’에 따르면 正殿에는 迦를 출산하는 영정을 걸고 北楣의 중앙에는 『密教大藏』一部를 동편에는 『大字楞嚴經』板本을 서편에는 『水陸儀文』板本을 두었다³⁾고 한다. 조선초기에도 『密教大藏』은 太祖가 자신의 거처에 안치할 만큼 중요한 경전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世宗 5年(1423) 12월 25일에는 일본국왕이 ‘大藏經板’을 요구하였는데, 국내에 1본 밖에 없으므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대신 ‘密教大藏經板’과 ‘註華嚴經板’과 ‘漢字大藏經’의 전질을 보내도록 결정하였고,⁴⁾ 世宗 6年(1424) 1월 8일에는 ‘密教大藏經板’, ‘註華嚴經板’, 大藏經 1部(인쇄본)를 내려 주고, 이에 더하여 金字로 쓴 『화엄경(華嚴經)』 1부를 함께 내려주었다.⁵⁾ 경판을 일본으로 보내기 한 해 전인 1423년 10월 25일에는 유후사에 전지하여 金沙寺의 『眞言大藏經』과 靈通寺의 『華嚴經』 등의 판자와 雲巖寺의 『金字三本 華嚴經』 1부와 『金字單本 華嚴經』 1부 등을 水站의 배로 운송하도록 하였는데,⁶⁾ 이를 통하여 진언대장으로 지칭되고 있는 『밀교대장』의 목판이 1423년 까지는 황해남도 용연군에 있는 금사사에 보관되고 있었으며, 세종 6년(1424)에는 일본으로 보내졌음을 알 수 있다. 『밀교대장』의 경판을 일본으로 보내기 전, 세종 6년 1월 1일에는 일본 사신

2) 『益齋亂稿』 卷5, ‘金書密教大藏序’.

3) 『陽村先生文集』 卷13, ‘德安殿記’.

4) 『세종실록』 세종 5년(1423) 12월 25일.

5) 『세종실록』 세종 6년 갑진(1424) 1월 8일.

6) 『세종실록』 세종 5년 계묘(1423) 10월 25일.

圭籌가 知申事에게 올린 글을 보면 세종이 작년 12월 25일에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자신들은 대장경판을 얻으러 왔으니 ‘密教大藏經板’과 ‘註華嚴經板’보다는 ‘大藏經板’을 달라고 다시 전하고 있다. 이 글 중에 “또 梵本 같은 것은 우리나라(일본)에서는 아는 이가 없어서 한갓 佛氏의 보배의 하나로만 알 뿐입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는 ‘密教大藏經板’을 지칭하는 것으로 『밀교대장』이 梵本, 즉 ‘梵字’로 된 인본임을 알 수 있다.

일본으로 건너간 ‘密教大藏經板’은 세종 6년 12월 17일의 기사에 따르면, 5월 21일에 京都[교토]에 도착하였고, ‘藏經’과 ‘木板’은 相國寺[쇼코쿠지]에 두었다고 하였다.⁸⁾ 따라서 1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운반되었고, 京都에 있는 相國寺에 수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相國寺는 室町[무로마치] 幕府의 제 3대 쇼군 足利義滿[아시카가 요시미즈, 재위: 1368~1394]가 일본 천황의 칙명으로 1392년에 세운 절이다. 무소 대사가 초대 주지였고, 金閣寺[킨카쿠지]와 銀閣寺[긴카쿠지]도 이곳의 부속 암자다. 南禪寺[난젠지]가 요시미즈의 권세로 오산에서 빠지고, 쇼코쿠지가 그 자리를 대신 하면서 격이 높아졌다.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五山十刹制’가 때로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相國寺는 불전이나 금당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법당이 불전을 겸하고 있다. 그 가운데 豊臣秀吉[도요토미 히데요시, 1536-1598. 8. 18.]의 아들 豊臣秀頼[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지은 법당은 가장 오래된 유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는 용[泣き 龍]’으로 불리는 천장 그림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⁹⁾ 相國寺¹⁰⁾는 임제종 상국사과의 총본산이며, 정식명칭은 ‘萬年山 相國承天禪寺’이다.

相國寺는 ‘藏經’과 ‘木板’이 소장된 이듬해인 1425년에 큰 화재를 당하게 되는데, 상국사의 화재에 대한 기록은 세종 8년(1426)년 5월 21일의 실록기사에는 ‘지난봄에 일본 京都의 民家 1萬 戶와 相國寺·道而寺에 불이 났다’¹¹⁾는 기록이

7) 『세종실록』 세종 6년 갑진(1424) 1월 1일.

8) 『세종실록』 세종 6년 갑진(1424) 12월 17일.

9) 이현진, 『교토! 천년의 시간여행』 (과주: 한길사, 2010), 258-259.

10) 상국사 홈페이지. <<http://www.shokoku-ji.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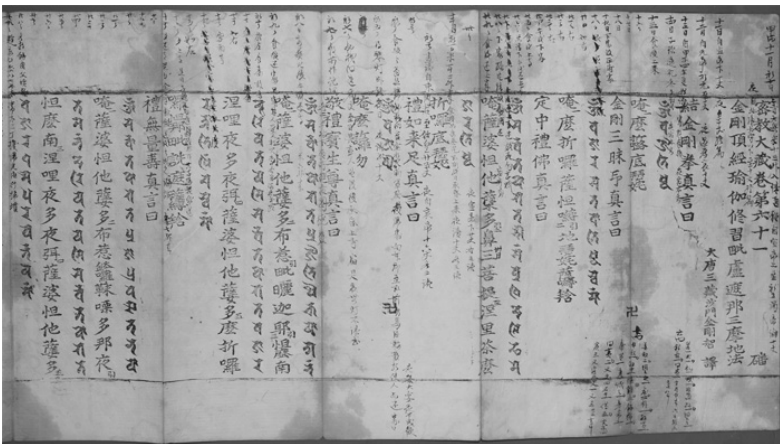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1425년의 화재는 상국사 뿐만 아니라 교토에 일어난 1만 호의 민가와 도이사까지 불에 타는 대형 화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화재로 ‘密敎大藏經板’과 ‘註華嚴經板’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상국사는 1467년과 1551년에도 큰 화재를 겪게 되는데 1425년의 화재에 경관이 무사하였다하더라도 이 후의 화재를 겪으며,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密敎大藏』 卷61의 형태적 분석

3.1 판본의 형식

새로 발견된 『密敎大藏』 卷61은 上下單邊으로 1張에 30行 15字로 되어있다. 서명은 “密敎大藏卷六十一”이라고 되어 있으며, 서명의 아래쪽에는 “磻”이라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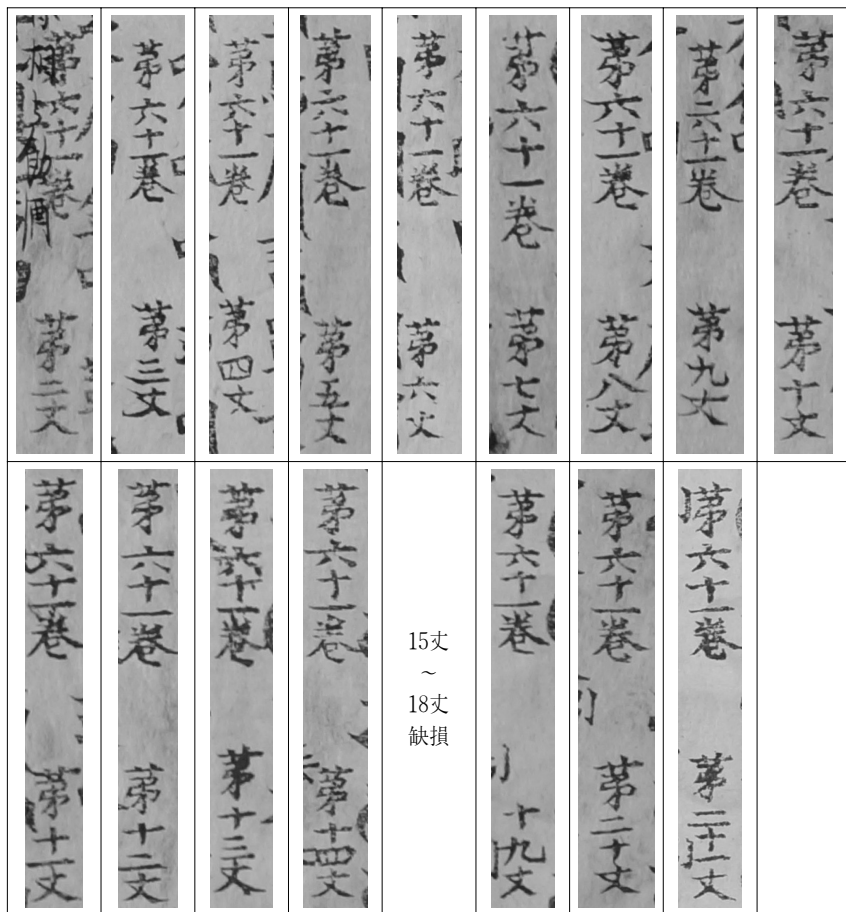


<그림 1> 『密敎大藏』 卷61의 卷首

11) 『세종실록』 세종 8년 갑진(1426) 5월 21일.

17장이 남아 있는데 전체 1~21장중에 '15~18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실되고 없다. 하지만 인본의 상태로 보아서는 후대에 유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작될 당시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版首에는 매장 1행의 다음에 “第六十一卷 第□丈”으로 되어 있고, 版題는 보이지 않으며 권차와 장차표시만 되어 있다.



<그림 2> 판수의 권수와 장차표시

요소를 없애고 감지에 서명만 기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말 13~14세기의 목판본을 절첩으로 장정하였을 때 흔히 보이는 양식이다.



『密教大藏』 卷61



『華嚴經』 卷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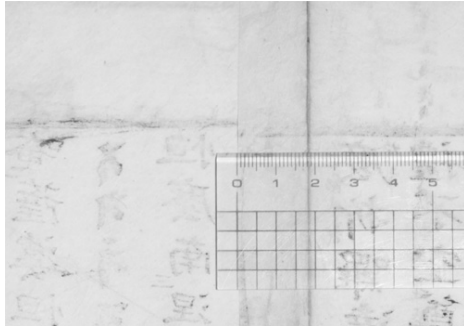


『華嚴經』 卷34

<그림 4> 『密教大藏』 13세기 간행본과의 표지 비교

위의 그림에 나타난 호림박물관 소장 『華嚴經』 卷9와 卷34는 13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私刊版으로 卷9는 貞元本이며, 卷34는 楮本이다. 두 개의 표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세기 무렵의 목판 절첩본의 장정에서 표지는 감지에 금이나 은으로 태두리를 두르고 서명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지의 양식을 통해 『密教大藏』의 간행시기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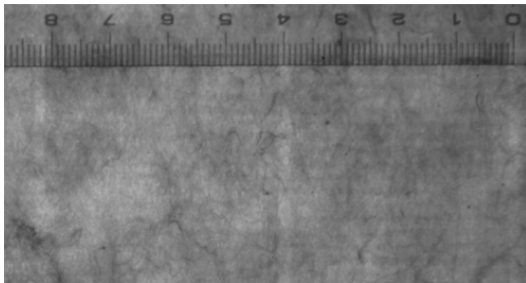
장정을 할 때, 종이 사이의 이음부분은 1.2~2cm 사이의 간격으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6行씩 접어서 절첩으로 장정하였다.



<그림 5> 뒷면 이음부분의 간격 측정

3.3 종이의 분석

『密教大藏』卷61의 종이는 3cm 이내 발의 측수 13축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세로 발끈 폭은 3.6~4.2cm로 나타났다. 紙幅은 57.5cm, 紙高는 31.4cm이며 종이 두께는 약 0.2mm로 측정되었다. 표지의 두께는 0.56mm로 본문보다 두꺼운 壯紙로 만들어졌다. 본문의 종이는 도침이 잘 되어 있어 어느 정도 도침의 광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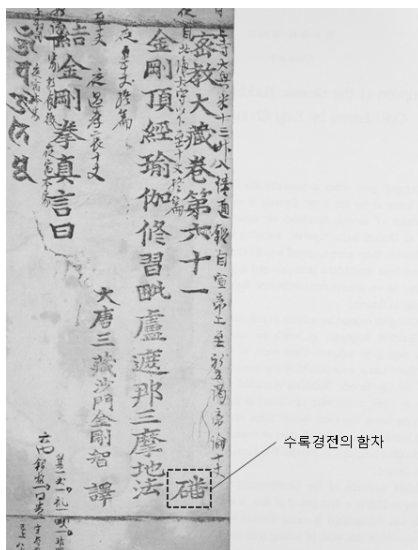
<그림 6> 세로 발끈 폭의 측정

4. 『密教大藏』 卷61의 내용적 분석

4.1 수록경전의 函次 기입 분석

“密教大藏卷六十一”이라는 서명의 아래쪽에는 “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密教大藏』의 函次는 아니다. “金書密教大藏序”에서도 언급되었듯이 『密教大藏』은 총 90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개의 函에는 10권이 들어감으로 굳이 9개의 函次를 천자문 순으로 기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磻”함은 천자문 순으로 529번째 해당하는 번호로 경전과 내용의 범위도 맞지 않다.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磻”이라는 함차는 본문에 수록된 경전의 再雕大藏經의 函次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7> 수록경전의 函次 기입

경전의 내용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제조대장경의 529번째 “磻”函에 해당하는

경전과 530번째에 해당하는 “溪”函에 수록된 경전이 『密敎大藏』 卷61에 수록되어 있는데 “溪”에 해당하는 경전의 書名과 譯者, 函次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15~18장 유실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

4.2 본문의 구성

『密敎大藏』 卷61에 수록되어 있는 경전은 총 6개로 다음과 같다.

“磻”函

K1268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遮那三摩地法』

K1266 『大威力烏樞瑟摩明王經』 卷下

K1271 『不動使者陀羅尼秘密法』 卷一

K1269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身呪本』

K1270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呪本』 一卷

“溪”函

K1272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敎王經』 卷三

위에서 언급한 순서는 『密敎大藏』 卷61에 수록된 경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앞의 K번호는 再雕大藏經의 수록 순서인데, 보는 바와 같이 경전에 해당하는 函次는 재조대장경과 일치하지만 그 수록 순서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재조대장경의 “磻”函의 수록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密敎大藏』 卷61에 수록된 순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조대장경의 “磻”函에 수록된 경전 중 『穢跡金剛禁百變法經』, 『穢跡金剛說神通大滿陀羅尼法術靈要門』, 『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의 3개의 경전은 밀교대장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재조대장의 수록 순서와 차이를 보인다.

<표 1> “磻”에 수록된 경전의 비교

재조대장 수록순서	고려대장 번호	경명	밀교대장 수록순서
1	K.1264	『穢跡金剛禁百變法經』	없음
2	K.1265	『穢跡金剛說神通大滿陀羅尼法術靈要門』	없음
3	K.1266	『大威力烏樞瑟摩明王經』	2
4	K.1267	『普遍智藏般若波羅蜜多心經』	없음
5	K.1268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遮那三摩地法』	1
6	K.1269	『千手千眼觀世音菩薩大身呪本』	4
7	K.1270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呪本』	5
8	K.1271	『不動使者陀羅尼秘密法』	3

『예적금강금백변법경』에는 진언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密教大藏』에는 수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예적금강설신통대만다라니법술령요문』의 경우에는 “大圓滿陀羅尼神呪穢跡眞言”이 수록되어 있는데, “磻”函 수록 경전 중에 누락되어 있는 이유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며, 현존하지 않는 『밀교대장』 卷60에 수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변지장반야바라밀다심경』의 경우에는 『般若波羅蜜多心經』에 수록되어 있는 ‘般若波羅蜜多呪’인 “揭諦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莎婆訶”를 권말에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般若波羅蜜多心經』에 수록된 주문으로 『밀교대장』의 다른 권차에서 소개하고 “磻”函의 경전에서는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밀교대장』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경전의 경우도 단권의 경우, 그냥 서명을 기입하지만 여러 권이 있는 경전의 경우는 “大威力烏樞瑟摩明王經 卷下”, “不動使者陀羅尼秘密法 卷一”,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呪本 一卷”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언이 수록된 권차를 적어 세부제목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溪”函의 경우 재조대장경에는 K1272 『대승유가금강성해만수실리천비천발대교왕경』 10권이 구성되어 있는데, 『밀교대장』에서는 15~18장 유실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지만 내용을 통하여 세부제목으로는 진언이 수록

되어 있는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卷3”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4.3 재조대장경의 해당경전과의 비교

『밀교대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전의 내용부분은 버리고 진언만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된 진언을 재조대장경과 비교하여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밀교대장』에 수록된 순서대로 재조대장경에 수록된 경전과 비교하여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3.1 진언의 수록과 구성

『밀교대장』 卷61에 가장 먼저 수록된 경전인 『금강정경유가수습비로자나삼마지법』은 唐의 金剛智가 漢譯한 경전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金剛一乘’의 가르침에 귀의한 명상법을 설명하는 경전이다. 진언의 염송을 통하여 높은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많은 진언이 수록되어 있는데, 재조대장경의 경우 총 42개의 진언이 수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밀교대장』에서는 15개의 진언만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재조대장경을 기준으로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遮那三摩地法”의 세부 제목 안에 수록되어야 할 진언이 『밀교대장』에서는 “大威力烏樞瑟摩明王經”의 세부제목 안에 1종, “不動使者陀羅尼秘密法 一卷”의 세부제목 안에 6종의 진언이 수록되어 있다. 재조대장경의 『금강정경유가수습비로자나삼마지법』에 수록된 진언과 『밀교대장』 권61에 수록된 진언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밀교대장』에 수록된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遮那三摩地法”의 진언은 대장경의 수록된 전부를 수록하고 있지 않으며, 순서도 차례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遮那三摩地法』內的 수록 진언 비교

수록 순서	再雕大藏經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 遮那三摩地法』	『密教大藏』卷61의 수록 순번		
		“金剛頂經瑜伽修習 毗盧遮那三摩地法”	“大威力烏樞瑟摩 明王經”	“不動使者陀羅尼 秘密法 一卷”
1	自他清淨句眞言	·	·	·
2	結金剛拳眞言	1	·	·
3	禮如來足眞言	4	·	·
4	金剛合掌眞言	·	·	·
5	敬禮寶生尊眞言	5	·	·
6	禮無量壽眞言	6	·	·
7	禮不空尊眞言	7	·	·
8	普賢三昧耶眞言	·	·	·
9	極喜三昧眞言	·	·	·
10	開心入佛智眞言	·	·	·
11	如來靜寂智眞言	·	·	·
12	如來堅固拳眞言	·	·	·
13	威怒降三世眞言	·	·	·
14	蓮花三昧耶眞言	·	·	7
15	心眞言	·	·	·
16	心眞言	·	·	·
17	心眞言	·	·	·
18	眞言(金剛界)	14	·	·
19	眞言(金剛身)	15	·	·
20	定中禮佛眞言	3	·	·
21	金剛三昧印眞言	2	·	·
22	灌頂眞言	12	·	·
23	三世如來慈悲甲冑眞言	8	·	·
24	歡喜印眞言	13	·	·
25	召集諸聖眞言	·	·	8
26	金剛鉤大印眞言	·	·	·
27	金剛索大印眞言	·	·	·
28	金剛鉤鑲印眞言	·	·	·
29	金剛妙磬印眞言	11	·	·
30	入平等性智眞言	·	6	·
31	金剛法歌詠眞言	10	·	·
32	金剛嬉戲印眞言	·	·	·

수록 순서	再雕大藏經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 遮那三摩地法』	『密教大藏』 卷61의 수록 순번		
		“金剛頂經瑜伽修習 毗盧遮那三摩地法”	“大威力烏樞瑟摩 明王經”	“不動使者陀羅尼 秘密法 一卷”
33	金剛華鬘印眞言	·	·	·
34	金剛歌詠印眞言	·	·	·
35	金剛舞妙印眞言	·	·	·
36	焚香眞言	·	·	9
37	金剛散花印眞言	·	·	10
38	金剛燈明印眞言	·	·	11
39	金剛塗香印眞言	·	·	12
40	金剛百字明眞言	·	·	·
41	本尊根本明眞言	9	·	·
42	根本眞言	·	·	·

『밀교대장』 卷61에 두번째로 수록된 경전인 『대위력오추슬마명왕경』은 당나라 阿質達霰에 의해 漢譯되었으며, 烏樞瑟摩明王을 통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의식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위력오추슬마명왕경”에 수록된 진언은 재조대장경의 순서와 같은 순서로 수록되어 있는데 6번째에 ‘入平等性智定眞言’은 재조대장경에서는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遮那三摩地法』에 수록된 진언이다. 재조대장경 『大威力烏樞瑟摩明王經』 卷下에서 11번째로 수록된 ‘素皤明王密言門及諸法要密言’은 『密教大藏』에서는 ‘素皤明王密言’이라고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수록진언의 명과 순서는 <표 3>과 같다.

<표 3> 『大威力烏樞瑟摩明王經』 內的 수록 진언 비교

수록 순서	再雕大藏經	『密教大藏』 卷61	비교
1	大威力根本密言	大威力根本密言	
2	心密言	心密言	
3	歸命三寶密言	歸命三寶密言	
4	心密言	心密言	
5	甲冑密言	甲冑密言	
6	器仗密言	入平等性智定眞言	“金剛頂經瑜伽修習 毗盧遮那三摩地法”

수록 순서	再雕大藏經	『密教大藏』 卷61	비고
7	頂髻密言	器仗密言	
8	頂密言	頂髻密言	
9	坐密言	頂密言	
10	心中心根本明	坐密言	
11	素幡明王密言門及諸法要密言	心中心根本明	
12	復次密言	素幡明王密言	진언명 축약
13	大威力明王守護密言	復次密言	
14	.	大威力明王守護密言	

『밀교대장』 卷61에 세 번째로 수록된 경전 『不動使者陀羅尼秘密法』은 金剛智에 의해 漢譯되었으며, 不動明王 또는 不動使者의 다라니를 염송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다. 재조대장경의 『不動使者陀羅尼秘密法』 권1에는 총 9종의 진언이 수록되어 있는데, 『밀교대장』에서는 해당경전의 진언 중 6종만이 수록되어 있고 7번째 이후로 수록된 진언 6종은 대장경의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遮那三摩地法』에 포함된 진언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진언의 명과 순서는 <표 4>와 같다.

<표 4> 『不動使者陀羅尼秘密法』 內의 수록 진언 비교

수록 순서	再雕大藏經	密教大藏 卷61	비고
1	不動使者根本呪	不動使者根本呪	
2	不動使者辟一切惡毒呪	不動使者辟一切惡毒呪	
3	不動迎請呪	不動迎請呪	
4	索呪	索呪	
5	師子呪	師子呪	
6	心中呪	一字呪	
7	根本印誦心呪	蓮花三昧耶眞言	“金剛頂經瑜伽修習毗盧遮那三摩地法”에 수록된 진언
8	一字呪	召集諸聖眞言	
9	總攝慈救不動呪	焚香眞言	
10		散花眞言	
11		燈明眞言	
12		塗香印眞言	

『밀교대장』 卷61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수록된 경전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대신주본』과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타라니주본』 권1은 내용전체가 진언으로 되어 있는 경전으로 재조대장경의 내용과 같다.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타라니주본』의 내용은 재조대장경의 4장 12행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의 내용은 『밀교대장』의 15~18장까지가 4장 분량이 결손되어 있다. 재조대장경의 “溪”函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卷三의 菩提眞言陀羅尼의 내용 중 8장 19행 3자의 내용부터 11장 3행까지가 『밀교대장』 卷61의 19장부터는 21장(권말)까지 수록되어 있다.

재조대장경의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卷三에는 ‘千臂千鉢曼殊室利菩薩金剛三摩地祕密根本菩提眞言陀羅尼’ 뿐만 아니라 ‘千臂千鉢曼殊心根本眞言’, ‘曼荼羅結界眞言’, ‘曼荼羅大灌頂密言陀羅尼’ 등 총 4종의 진언이 수록되어 있는데, 『밀교대장』 卷61에는 ‘千臂千鉢曼殊室利菩薩金剛三摩地祕密根本菩提眞言陀羅尼’가 끝난 후 卷末題가 기록되어 있어, 나머지 3종의 진언은 『밀교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손되어 있는 4장 분량에 앞서 나온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타라니주본』의 내용 1장 정도가 추가되고, ‘천비천발만수실리보살금강삼마지비밀근본보제진언 다라니’의 앞부분 반장 정도가 추가된다고 해도, 2장 반정도의 분량이 남기 때문에 나머지 진언이 결손되어 있는 4장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5>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 권3 内の 수록 진언

수록 순서	再雕大藏經	비고
1	千臂千鉢曼殊室利菩薩金剛三摩地祕密根本菩提眞言陀羅尼	『밀교대장』 권61에 수록
2	千臂千鉢曼殊心根本眞言	『밀교대장』 권61에 없음
3	曼荼羅結界眞言	
4	曼荼羅大灌頂密言陀羅尼	

4.3.2 진언명의 표기

『밀교대장』은 경전의 내용은 생략하고 진언으로만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문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경전에 진언의 명칭이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맥상 드러난 진언의 설명을 통하여 진언명을 기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재조대장경 『금강정경유가수습비로자나삼마지법』의 경우 본문의 내용에는 “壇과 慧는 갈고리처럼 結해서 金剛拳으로 하고 進과 力의 2度を 합하여 세 번 들어라.”라고 手印法과 절차를 설명한 다음 해당 진언을 적어 놓았는데, 『밀교대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언명을 “結金剛拳眞言”으로 기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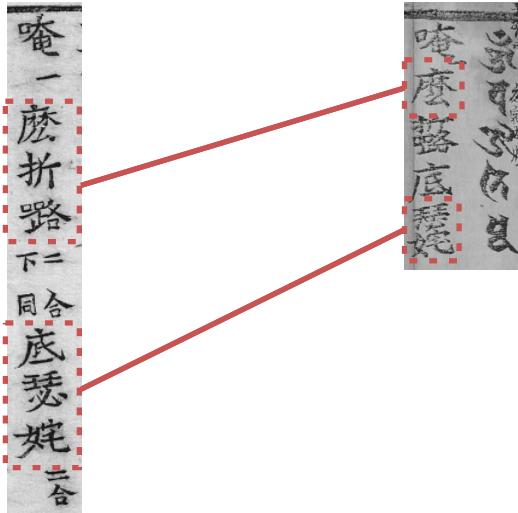
또 “金剛持의 大印을 곁하고 날날 여래의 발에 예경한다고 관상하라. 禪·慧·壇·智를 거꾸로 서로 교차하여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정수리 위에 둔다.”라는 내용은 “禮如來足眞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경전에서 진언의 구체적 명칭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밀교대장』은 그 절차 혹은 내용 중에 중요한 구절을 통하여 진언명을 적고 있다.

4.3.3 진언의 표기

재조대장경과 『밀교대장』의 큰 차이는 재조대장경의 진언의 경우 漢字 音譯으로만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밀교대장』의 경우는 悉曇字로 먼저 적고 漢字 音譯로 併記하였다. 또 진언의 한자표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재조대장경은 진언이 두 개의 한자를 사용한 복합음으로 표시될 경우에 원래의 한자를 적고 아래에 小字로 주를 달아 음의 사용법을 표기하는 반면에 『밀교대장』에서는 두 개의 한자를 합하여 하나의 한자로 적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다.

‘結金剛拳眞言’을 예로 들면 <그림 8>과 같다.



『재조대장경』의 ‘結金剛拳眞言’

『밀교대장』의 ‘結金剛拳眞言’

<그림 8> 진언의 한자표기 비교

『밀교대장』은 재조대장경의 합차를 차용하여 순서를 정하였지만 재조대장경에는 없는 실담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한자 진언의 표기법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내용상으로는 재조대장경이 아닌 다른 저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간행시기에 대한 고찰

1251년 재조대장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官에서 주도하여 다른 경전을 판각할 여력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密教大藏』은 재조대장경의 간행 이후에 판각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재조대장경의 수록 경전과 같은 函次를 가진 경전을 기입하고 있는 것 또한 재조대장경의 순서를 완전히 따르지는 않았지만 참고하였을 것이라는 반증이다.

또한 忠烈王(재위 1274~1308년)부터 시작되는 원 간섭기에는 목판본의 판각

보다는 공덕 목적의 금·은 사경이 제작이 주를 이루었다. 이전의 국왕발원 사경이 단일경전의 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금자 대장경의 사성에 많은 공을 들여 忠烈王 15年(1289)에는 『金字大藏經』의 완성을 이루었다. 금자대장경의 사성 이후에 이미 간행되었던 『密教大藏』 역시 그 내용을 추가하여 忠肅王 15年(1328)에 『金字密教大藏』을 완성한 것이다.

『密教大藏』에는 刊記가 없지만 간행시기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권말의 “散員金靖刻”이라는 刻手의 기록이다.

散員은 고려시대의 정 8품 武官職으로 한 領에 5명 씩 두었다.¹²⁾ 고려시대 무반의 품계와 관직은 <표 6>과 같은데, 金靖이라는 인물이 확인이 되는 기록은 『高麗史節要』 第 18卷 元宗順孝大王一 乙丑 6年(1265)¹³⁾에 보면 侍御史 李穎과 郎將 金靖을 몽고에 보내어 신년을 賀禮를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郎將은 정 6품의 武官職으로서 金靖이 『密教大藏』을 간행할 당시에는 刻手로 활약하였고, 정 8품의 散員에서 元宗 6年(1265)에는 정6품의 郎將으로 진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고려시대 무반의 품계와 관직

品階	正3品	從3品	正4品	正5品	正6品	正7品	正8品	正9品
官職	上將軍	大將軍	將軍	中郎將	郎將	別將	散員	校尉

金靖은 고려 高宗 45年(1258) 柳暉·朴松庇, 崔昱 등과 함께 삼별초를 앞세워 崔瑄의 집을 급습, 그를 살해함으로써 최씨정권의 막을 내리게 한 金俊(?~1268)의 아들이다. 『고려사』에는 金俊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金柱·金碩材·金大材·金皜·金祺·金靖이 있었고, 그 중 김애, 김기, 김정은 후처의 소생이라

12) 서경의 『高麗圖經』에는 산원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복장은 자색 김의 소매 좁은 옷[紫羅窄衣]을 입고 복두에 가죽신을 신는데, 중국의 班直이나 殿侍 따위와 같은 것이다. 武臣의 자제로서 兵衛의 역을 지고 있는 자로 이를 보한다. 중국 사신이 이를 때마다 소반을 받들고 술잔을 들이며 옷을 들고 수건을 받드는 데 다 이들을 쓴다.”라고 하였다.

13) 遣侍御史李穎, 郎將金靖, 如蒙古賀正.

고 하였다. 또 김기와 김정은 모두 장군이다¹⁴⁾라고 하였다.

김준은 최씨 정권의 家奴로 崔怡의 집권 때, 특별한 신임을 받아 벼슬길에 진출하였고, 최이의 死後 崔恒의 옹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別將職을 제수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였다.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경계하여 김준과 소원하게 되었는데, 對蒙 講和를 강력히 희망했던 제주 세력들의 도움과 김준을 적극 지원했다. 神義軍과 夜別抄·都房 그리고 그의 弟와 子들이 정변의 중심이 되었고, 그의 수하 家臣과 家奴들도 그를 적극 도왔다. 무오정변에 참여한 공신들 중 문신은 유경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武人이었는데, 유경이 정변 직후 2년 만에 실각한 뒤로는 김준이 정권을 잡아 一族을 중심으로 집권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최씨 정권과 다름없는 무인정치가 계속되어 무인정권의 연장에 지나지 않았다.¹⁵⁾

한편 馬島 3호선에서 출토된 목간에서도 김준정권과의 연계성을 찾은 논문¹⁶⁾에서는 “金侍郎”이라고 적혀 있는 목간에 주목하여 마도 3호선의 목간의 편년은 1264~1268년이 유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김시랑”은 김기, 김정 중 어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준은 집권 후반부 측근 세력을 삼별초 도령시랑 및 중방 우변·좌변에 상장군·대장군을 포진시키는데 성공하여 그들의 보좌를 받았으며, 한편으로 그들을 직접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준은 자신의 직계 가족을 장군에 임명하여 권력비호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적 한계와 집권 후반부 대몽외교의 불안을 극복하려 하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었다.¹⁷⁾

당시의 상황과 기록들을 볼 때, 최씨 정권이 막을 내린 후 김준이 정권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힘입어 가파른 출세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4) 『高麗史』 第130卷, 12~20장(金俊條).

15) 김상철, “김준 정권의 성립과 그 세력기반,”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48-49.

16) 강재광, “馬島 3호선 木簡을 통해 본 金俊政權의 支持基盤,” 『東方學』 第29집(2013).

17) 강재광, 215-216.

김준이 최의를 죽이고 최씨 정권의 막을 내린 다음해는 元宗(1219~1274)이 즉위하였는데, 원종대부터 교류가 시작된 라마교의 영향과 元朝 밀교승들의 來朝 활동과 짝하여 총지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¹⁸⁾

원으로 부터의 밀교의 유입은 大夢 講和를 주장한 세력에 힘입어, 김준이 정권을 잡은 것과는 큰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密教大藏』의 관측은 元宗代인 김준정권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고, 밀교대장의 각수로 당시 산원이었던 그의 아들 金靖이 참여하게 되었음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密教大藏』卷61은 원종 즉위년인 1259년에서, 金靖이 郎將으로 되기 이전인 1265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268년 원의 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김준 부자와 아우 충을 모두 燕京으로 오도록 명하였는데, 김준은 이를 듣지 않고 車松祐 장군과 모의 하여 사신을 죽이고 섬으로 도망가자고 왕에게 아뢰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사신을 살해할 계획은 무산이 되었으나 김준은 결국 원 황제의 명을 어기고 入朝하지 않았다. 그 해 5월에는 몽고에서 入朝하지 않는다고 책할까 두려워서 불공을 드리면서 복을 빌기도 하였다. 이 일로 김준은 원종과 크게 멀어졌으며, 결국 그해 12월에 그 족속과 함께 살해당하고 만다.¹⁹⁾

김준은 당시 권력을 잡은 후에는 최씨 정권과 마찬가지로 왕이 元과 친밀하게 지내어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元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 여러 계획을 세우다 결국에는 살해되고 만다. 이 과정에서도 元의 문책을 두려워하여 불공을 드리고 복을 비는 모습은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金俊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李齊賢(1287~1367)의 ‘金書密教大藏序’에서는 “昔之人 知其若此 哀而纂之 成九十卷 名之曰密教大藏 刊行于世”라고 하였는데, 밀교대장을 간행한 사람을 ‘옛 사람(昔之人)’이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고려왕실에 忠心을 보였던 이제현의 인물적 면모를 볼 때, 왕실이나 국왕의 명으로 간행하였다면

18)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서울: 운주사, 2006), 322.

19) 『高麗史節要』 第18卷, 元宗順孝大王一, 戊辰 9年(1268).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密敎大藏』은 김준정권이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준정권과 『밀교대장』 간행의 관련성은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 언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 발견된 『密敎大藏』 卷61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고, 대조대장경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성의 특징을 파악하여 보았다. 또한 권말의 각수명을 통하여 간행시기를 도출하였다.

우선 사료에 나타나는 기록을 통하여 밀교대장은 고려시대 간행되어 조선초기까지 그 목판이 존재하였다가, 1424년 『밀교대장』과 『주화엄경』 목판이 함께 일본으로 보내져 교토의 상국사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425년의 상국사의 화재로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밀교대장』의 실물이 소개되지 않은 이전의 논문에서는 일본에 있는 고려국왕 발원 金字寫經이 충숙왕 시기에 寫成된 『밀교대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지만,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밀교대장』은 경전의 진언부분만을 따로 편집하여, 구성된 체제로 되어 있는 경전이기에 때문에 현재까지 『金書密敎大藏』은 발견된 바가 없다.

새로 발견된 『밀교대장』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밀교대장』은 경전의 眞言 부분만을 가려 뽑아 구성된 새로운 방식의 편집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수록된 경전의 함차와 재조대장경의 함차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재조대장경에 수록된 경전의 함차를 따르고 있으나 재조대장경에 수록된 진언을 똑같이 수용하지는 않고 진언을 선별하고 순서를 재구성하여 편집하고 있다.

둘째, 재조대장경에서 진언의 漢譯만을 싣고 있는 경우에도 『밀교대장』은 悉曇字와 漢譯을 併記하고 있어, 재조대장경이 아니라 다른 저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재조대장경에서 진언의 명칭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내용과 진언을 외우는 절차 중에서 중요한 어구를 선정하여 『밀교대장』에서는 진언의 명칭으로 삼고 있다.

넷째, 漢譯의 표기를 재조대장경에서는 한자의 이중표기 후 결합하여 음을 구성하는 방식을 小字의 註로 기입하고 있는 반면에, 『밀교대장』에서는 두 개의 한자를 하나의 글자처럼 합하여 표기하고 있다.

다섯째, 『밀교대장』 권61의 간행시기는 권말에 나타난 각수명에 의하여 도출할 수 있었는데, 각수 ‘散員 金靖’은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金俊의 아들로 金俊 정권하에서 『밀교대장』이 판각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밀교대장』 권61은 元宗 즉위년인 1259년에서 金靖이 郎將으로 되기 이전인 1265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밀교대장』은 현재 발견된 것이 2종 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드러난 형태적 특징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경전이 추가 발견되어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高麗圖經』.

『高麗史』.

『高麗史節要』.

『益齋亂稿』.

『朝鮮王朝實錄』.

강재광. “馬島3호선 木簡을 통해 본 金俊政權의 支持基盤, 三別抄·重房 관련 木簡 分析을 중심으로.” 『東方學』 第29輯(2013. 11). 187-220.

金光植. 『高麗 武人政權과 佛教界』. 서울: 민족사, 1995.

- 김상철. “김준 정권의 성립과 그 세력기반.”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김수연. “高麗時代 密敎史 研究.”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 김수연. “高麗後期 摠持宗의 활동과 사상사적 의미.” 『회당학보』 제16집(2001). 52-79.
- 金曉吞. 『고려사 불교관계사료집』. 서울: 민족사, 2001.
- 남권희. “12世紀 刊行의 佛敎資料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17집(1999). 373-420.
-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남권희. “陀羅尼와 曼荼羅 간행의 역사.” 『韓國의 傳統 陀羅尼, 東齋文庫 所藏資料 特別殿』. 경주: 위덕대학교 출판부, 2004.
-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서울: 들녘, 1997.
- 朴泰華. “韓國佛敎의 密敎經典 傳來攷.” 『韓國佛敎學』 1(1975). 45-62.
- 邊東明. “忠肅王의 密敎大藏 金字寫經.” 『역사학보』 184(2004). 41-77.
- 佛敎文化研究員 編. 『韓國密敎思想研究』.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6.
- 비로영우 스님.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밀교』. 서울: 하남출판사, 2001.
- 서운길. 『한국밀교사상사』. 서울: 운주사, 2006.
- 서운길. “高麗 密敎信仰의 展開와 그 特徵.” 『佛敎學報』 19(1982). 1-21.
- 석설오 편역. 『달라이라마의 밀교란 무엇인가』. 서울: 효림, 2002.
- 釋智賢. 『大乘佛敎의 最深層 密敎』. 서울: 현암사, 1978.
- 松長有慶. 『密敎役事』. 서울: 경서원, 1990.
- 松長有慶. 『밀교경전 성립사론』. 서울: 불광출판부, 1993.
- 윤기엽. 『고려 후기 불교 - 사원의 불교사적 고찰』. 서울: 일조각, 2012.
- 이범교. 『밀교와 한국의 문화유적』. 서울: 민족사, 2008.
- 李智冠. 『韓國佛敎所儀經典研究』. 서울: 석림회, 1983.
- 이태승. “高麗大藏經에 나타난 悉曇梵字에 대하여.” 『인도철학』 32집(2011). 167-192.

- 이현진. 『교토! 천년의 시간여행』. 과주: 한길사, 2010.
- 田中公明. 『티베트 밀교 개론』. 서울: 불광출판사, 2010.
- 종석스님. 『밀교학개론』. 서울: 운주사, 2000.
- 허일범. “韓國密敎의 特性과 曼茶羅.” 『회당사상과 밀교』. 서울: 운주사, 2003.
341-378.
- 허일범. 『한국의 진언문화』. 서울: 해인행, 2008.
- 허일범. “한국의 진언·다라니 신앙 연구.” 『회당학보』 제6집(2001). 52-79.

